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담보대상 물건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은 50%로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다.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가 면제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200만원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경우 면제,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1억5천만원 집 담보, 수령액 월 40만원뿐

정부는 만 65세에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를 가정한다면 매월 9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후 기대여명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대상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부의 나이차가 3~5세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명의 나이가 70세 정도는 돼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만 55세에 은퇴했을 경우 많게는 15년 이상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물가상승률·남은 수명 감안엔 실질 구매력 하락 막연한 기대보다 연금·금융소득 확보가 더 안전

밖에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 4%가 가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증가에 따른 연금액 하락, 생활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 구매력하락을 들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정부가 제시한 주택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가격때문에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다. 광주는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을 넘는 주택이 드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년 4%에 못미친다.

즉 1억5천만원의 주택을 정부가 제시한 가정대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매월 4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연 4%가 아니라 연 2%일 경우 똑같은 1억5천만원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매월 연금액은 46만에서 3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후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후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조그마한 자산이라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해 부동산 외에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역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운전면허 취소됐어도 차사고뎀 보험금 줘야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일인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차당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보험사는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대해서는 면책이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육모씨는 자신이 고공한 직원 박모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업무용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차례상 비용 15만원선 작년 수준과 비슷할듯”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석 제수용품 구입 시기에 형성될 사과·배 등 과일가격은 작년 추석 때보다 낮고 밀치와 쌀물 조기 가격은 작년보다 높아 제수음식 마련비용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하나로클럽은 사과의 경우 반입량 증가로 시세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추석을 앞두고 시세가 오르더라도 작년 추석 때의 판매가보다는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 하나로클럽은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15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 이마트도 참조기·고사리·도라지·한우 등 추석 제수용품 12개의 가격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량 평소보다 최고 5배 늘린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대부 지원과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전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세종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추석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추석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추석 성수품 16개와 개인서비스 5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수급과 가격상승을 중점 관리키로 하고 각 시도별로 오는 20~21일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추석 성수품 특별 가격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21개 품목은 쌀·무·배추·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조기·명태·갈치·오징어·고등어·이용료·미용료·목욕료·삼겹살(외식)·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연합뉴스

“현 주화 디자인 역대 최고 졸작”

20년 이상 화폐디자인 담당 퇴직자 주장

한국은행에서 20년 넘게 화폐디자인을 담당하고 퇴직한 인사가 “현재 유통중인 주화 디자인 체계는 우리나라 유통 주화 가운데 가장 졸작”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조병수 전(前) 한양대 디자인대학 겸임교수는 자신이 최근 집필한 단행본 ‘우리나라 기념주화(㈜오성K&C 출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교수는 “1982년 6월 500원짜리 주화 발행 후 83년 1월 나머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주화 모두의 디자인을 바꿔 신체계투화를 도입했으나 사전 면밀한 연구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직위주로 단 시일에 발행을 추진, 디자인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남겨 우리나라 주화중에서 가장 조악(粗惡)한 화폐로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0원화를 예로 들면서 “디자인 소재로 두루미(화) 말고도 의의가 있고 미적 감각을 가진 소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15종이 분포한 두루미와 가운데 어떤 종류인지도 알 수 없는 두루미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디자인이 퇴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 전 교수는 “당시 조폐공사의 디자인실장이던 강 박 실장이 53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해 디자인실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화폐디자인 경험이 일천한 디자이너가 주화도안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한국, OECD 가입 10년 어떻게 변했나

GDP 5,574억달러 41% ↑
수출 2,844억달러 119% ↑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사교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올해로 10년.

이를 기념해 외교통상부는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외교관, 경제·시민단체 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22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996년 10월 11일 우리나라는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자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축하를 들었다.

1년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자부심은 크게 꺾였고 이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OECD 가입 10년을 맞았다.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OECD 가입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7천875억달러로 96년의 5천574억달러에 비해 41.3%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96년의 1만2천197달러에서 지난해 1만6천291달러로 33.6% 늘어남에 세계 29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2천844억달러를 기록해 96년의 1천297억달러에 비해 119.3%나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경제 외형은 지난 10년간 이같이 커졌지만 OECD 30개 회원국과 비교한 순위는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OECD에서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GDP는 1996년 6천302억달러로 10위에서 2004년에는 1조53억달러로 한계단 오른 9위에 머물렀다.

1인당 GDP는 1996년 1만3천843달러로 22위였으나 2004년에는 2만 907달러로 23위를 기록해 오히려 한계단 떨어졌다.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29.6%로 19위였으나 2004년에는 41.9%로 12위로 뛰어 OECD 가입 이후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연합뉴스



위스키 테마 패션쇼 21일 서울 광장동 W호텔 우버(Woo Bar)에서 진로발렌타인스의 위스키'시바스18(Chivas 18)'을 테마로 한 패션쇼가 열려 모델들이 시바스 위스키의 컨셉과 컬러를 이용해 제작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기업들 투자 하라” 압박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박현주 회장이 보유지분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것임을 천명했다.

2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기업이건 나라이건 장기적인 성장과 추가가치가 가능해진다”며 “연구개발·신규사업 등의 투자 없이 배당에만 전력하는 기업은 미래에셋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강력하게 이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대내외에 밝혀왔다.

현재 미래에셋은 계열 운용사를 통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12개, 5~10%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20개에 달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대형 재벌그룹 계열사를 포함, 주요 상장사들에 대해 강력한 ‘입김’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투자를 게을리 한 채 과도한 배당을 하는 기업은 물론, 돈을 쌓아만 놓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 다. 특히 외국펀드의 인수·합병(M&A)

위험이나 경영간섭 때문에 과도한 배당요구에 시달린다면 미래에셋 운용 계열사들이 ‘백기사’역할을 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다면 미래에셋이 컨설팅을 해서라도 투자자를 찾아주겠다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만약 기업들이 그래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래에셋 운용사들의 펀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을 팔고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가·소형주택 보유자등 주택청약 불이익 줄인다

정부 주택청약 가점제 보완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먹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로또식 추첨제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까지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점치를 뒤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

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점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가지역에서의 내집 마련이 지극히나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 이 말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점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지역 농축협	6급 일반관리직(고졸수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603-6690
대창 E&T	유류 취급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383-6831
케이이	(주)케이이 정규직 TMA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3	062-236-1682
경진산업개발	자동차부품 생산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3	062-523-2072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신입, 경력사원 및 주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574-8011
이화인더스트리	품질관리기술자 모집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9/25	062-951-9341
H&T아웃소싱시스템	[HNT]SK텔레콤 114 정규직 상담원 모집(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6	062-350-6333
한국쓰리엠	[나주/경기/서울]사무직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61-330-7012
동양생명	[광주]본사 콜센터 수호천사 상담원 150명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2-518-2769
롯데백화점	대리점 관리 신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9	062-571-7003
인포모션	감각있는 디자이너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226-4706
폭스존	의류 판매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2-611-8000
한진실업	조리/회계/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5년	1600~1800	09/30	062-953-4702
영원메디칼	경리/회계/사무보조 여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30	062-973-06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